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자리가 이 법당 한자리지만 이 한자리가 우주 삼라만상의 한자리인 것입니다. 한자리란 그렇게 가벼운 한자리가 아닙니다. 한생각도 가벼운 한생각이 아닙니다.

역대로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발견하셔서 우리들한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서 지금까지, 아니 후대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주춧돌 삼고 또는 거름을 삼아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설법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 이 자리가 바로 한도량입니다. 대의적으로 따진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여래의 집이면서도 여러분 각자 한 몸 자체가 바로 법당인 줄 아셔야 합니다.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자기가 한 발 한 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라는 착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에 대한 착, 또는 육근에 관한 착의 문제가 붙습니다.

사람이 아상만 뗀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했는데 어찌 모든 것을 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아상과 집착과 삼독을 빼 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공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모두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허깨비 같은 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선과 더불어 거기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체, 몸을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자체, 삼합이 공존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여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어저께 부처와 오늘 부처가 둘이 아니며, 그럼으로써 여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는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한다면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가 가르침이며 그대로가 행이며 그대로가 여여한 줄을 알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게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을 해야만 하는,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콩나무로 비유를 가끔 합니다. 어저께 콩씨를 오늘 아침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나더라. 그런데 그 콩나무는 어저께 콩씨가 자기 몸으로 화해진 것을 모르고 어저께 콩씨를 찾느라고 바깥에서 애쓰더라.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는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참 생명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선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자기가 움죽거리는 것은 바로 바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듯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콩씨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또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나침반을, 중도를 세워서 항상, 입으로 나쁜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안으로 굴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인연을 맺고 또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가 아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뜻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꼭 알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대 돌아가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면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각자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생명선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 음파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빛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광명선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조절이라든가 영사기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인과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탐지기의 조절이라든가 무전기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물질과학이니 문명이니 문화니 철학이니 하는 모든 과목도 바로 인간에게서 주어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질과학으로서 문명으로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만능적인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저께 일을 알고 있고 작년 일을 알고 있고, 어디서 구경을 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와 같이 깨달은 사람들은 역시 앞 부처, 뒤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가 자비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의 자기 내공에, 즉 말하자면 생명선 그 자체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보신과 화신 또는 법신 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이 육신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다 갖추어서 있다는 것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물 부처가 따로 있고 불 부처가 따로 있고 흙 부처가 따로 있고 바람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처님들의 이름 자체가 부처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찰나찰나 움죽거리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데까지 도달해야만이 살아서 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지 죽어서 열반을 한다면 그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기에 죽어서 열반을 한다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열 가지 물감 빛깔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도리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를, 이름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나 삼합이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삼세심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그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일임해서 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선을 못 믿는다면 말은 어떻게 하며 몸은 또 어떻게 움죽거리겠습니까?

그렇기에 자기 생명선, 이름해서 주인공인 참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